

國語 語彙의 變遷 研究(3)

金 泰 琨*

目 次

- I. 序言
- II. 語形 消滅型
- III. 語形 分化型
- IV. 語形 變化型
- V. 語形 維持型
- VI. 結論

I. 序 言

인간이 날마다 사용하는 언어는 고정되어 不變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문헌에 적힌 국어와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어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15세기에 사용되었던 국어 어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後代에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前篇¹⁾에 이은 後續研究이다.

어휘의 변화는 그 樣相도 갖가지인데 語形이 변하는 것, 의미가 변하는 것, 그리고 이들 모두가 변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길로 보아 알 수 있는 語形에 기준을 두어, ① 語形이 소멸된 것, ② 語形이 分化된 것, ③ 語形이 변화된 것, ④ 語形이 維持된 것으로 나누어 語形이나 의미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 제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1) 金泰琨(1994), “國語 語彙의 變遷 研究(1)”, 白鹿語文10, 제주대 국어교육학회.
_____(1995), “國語 語彙의 變遷 研究(2)”, 語文研究8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에 해당되는 어휘를 선정하여 考究하였는데 語形이 소멸된 것으로 ‘긋다’, ‘나조’를, 語形이 分化된 것으로 ‘므르’, ‘모’를, 語形이 변하는 것으로 ‘글밭’, ‘보차다’를, 語形이 維持된 것으로 ‘날’, ‘농다’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 인용된 用例의 文헌과 그것의 略號는 다음과 같다.

<歌曲>	歌曲源流	1876
<家諺>	家禮諺解	1632
<關明>	關聖帝君明聖經	1855
<救方>	救急方諺解	1466
<國漢>	國漢會語	1895
<金三>	金剛經三家解	1482
<南宮>	南宮桂籍	1876
<南明>	南明集諺解	1482
<內>	內訓	1475
<老諺>	老乞大諺解	1670
<楞>	楞嚴經諺解	1461
<同文>	同文類解	1748
<痘經>	痘瘡經驗方	顯宗朝
<痘要>	諺解痘瘡集要	1608
<杜重>	分類杜工部詩諺解重刊本	1632
<杜初>	分類杜工部詩諺解初刊本	1481
<馬諺>	馬經抄集諺解	1635
<明義>	明義錄諺解	1777
<蒙老>	蒙語老乞大	1741
<蒙法>	蒙山和尚法語略錄	世祖朝
<蒙補>	蒙語類解補	1790
<蒙解>	蒙語類解	1768
<無寬>	增修無寬錄諺解	1792
<朴新>	朴通事新釋諺解	1765
<朴諺>	朴通事諺解	1677

<方言>	方言類釋	1778
<翻老>	翻譯老乞大	1517
<翻朴>	翻譯朴通事	1517
<法語>	法語	1466
<法華>	法華經諺解	1463
<普勸>	念佛普勸文	1776
<三譯>	三譯總解	1703
<釋>	釋普詳節	1447
<石千>	石峰千字文	1583
<小學>	小學諺解 宣祖版	1586
<松江>	松江歌辭	1747
<新續>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十九>	十九史略諺解	1772
<兒學>	兒學編	1907
<樂章>	樂章歌辭	中宗朝
<女四>	女四書諺解	1736
<譯補>	譯語類解補	1775
<譯解>	譯語類解	1690
<永嘉>	永嘉集諺解	1464
<五倫>	五倫行實圖	1797
<伍倫>	伍倫全備諺解	1721
<倭解>	倭語類解	18세기
<龍歌>	龍飛御天歌	1447
<圓>	圓覺經諺解	1465
<月釋>	月印釋譜	1459
<月千>	月印千江之曲	1447
<類合>	新增類合	1576
<繪音>	繪音諺解	正祖朝
<正俗>	正俗諺解 奎章閣本	17세기
<重老>	重刊老乞大諺解	1795

<聞義>	聞義昭鑑診解	1755
<捷蒙>	捷解蒙語	1790
<七大>	七大萬法	1569
<太上>	太上感應篇圖說診解	1852
<漢清>	漢清文鑑	英祖朝
<訓蒙>	訓蒙字會	1527

II. 語形 消滅型

1. 긔다

‘긔다’는 子音 앞에서는 ‘긔’으로 표기되는데 이것은 15세기 당시의 八終聲 표기법에 따랐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중세국어에 自動詞와 他動詞로 쓰였다. 먼저 自動詞로 쓰인 것은, ‘그치다(中止)’와 ‘끊어지다(斷, 絶)’의 의미로 쓰였는데 15세기 국어에서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그치다(中止)

- 존홉 곧거든 부르면 알포미 문득 긔느니라(敎方 下106)
- 兵革이 긔디 아니하야 사루미 蘇復디 못홀시(兵革未息人來蘇)(杜初8:22)

② 끊어지다(斷, 絶)

- 넷 버든 書信이 그쳐 업고(故人書斷絶)(杜初7:2)
- 二障이 긔디 못홀문(二障不斷)(圓 上二之二23)

다음으로 他動詞로 쓰인 것은 ‘끊다(斷)’의 의미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은 用例가 15세기 국어에서 발견된다.

③ 끊다(斷)

- 씨를 그쳐(釋11:21)
- 하다가 媧을 긔디 아니하야(若不斷媧)(楊6:89)

- 갈흐로 물 그추미 곤흐며(如刀斷水)(金三:29)
- 니스리롤 굿게 흐시누니(釋6:7)

한편 ‘굿다’에서 파생된 ‘그츨다’가 후기 중세국어에서 많이 쓰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쓰인 ‘그치다’란 어휘하고 다른 것이다.²⁾ ‘그츨다’가 ‘斷’의 의미를 가진 것에 비하여 ‘그치다’는 ‘止’의 의미를 가졌다. 즉 ‘그치다’는 15세기 국어에서도 ‘止’의 의미를 나타내어 많이 쓰인 것으로 ‘그츨다’에서 음운변화를 일으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별개의 어휘이다.³⁾

‘그츨다’가 쓰인 用例를 15세기 문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一切法界 오직 이 말슴이 그츨니(一切法界唯是絕言)(圓 上一之一-72)
- 永히 輪廻를 그츨며(永絕輪廻)(圓 上一之一-102)
- 句는 말삼 그츨 짜히라(月釋 序8)
- 구스리 바회에 다신돌 긴히든 그츨리잇가(樂章3)

‘그츨다’는 16세기 국어에서도 ‘斷, 絕’의 의미로 활발히 쓰였는데, 그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그츨 절 : 絕, 그츨 단 : 斷(이상, 類合 下12)
- 그츨 절 : 切(石千16)

이 ‘그츨다’가 17세기 국어에서는 ‘ㄴ’이 첨가되어 ‘근츨다’로 변하여 쓰인 것이 나타난다. 이의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손가락을 근치 수퓌 빠(新續 孝2:68)
- 처음 몰라 근춘 고대 加후야(家話6:7)

이러한 ㄴ첨가 현상은 다른 말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근초다>근초다(藏),⁴⁾ <더디다>더지다>던지다,⁵⁾ 그리고 ‘고치다’를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방언에

2) 全在昊(1987), 「國語語彙史 研究」, 慶北大出版部, pp.74-75.

3) 그러나, 劉昌棟(1974:20)는 ‘굿다’가 ‘그츨다’로 변하고, 다시 ‘그치다’로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한 모던 이룰 숨겨 근출치 일후미 覆 | 오(法華6:175), 길우며 영글우며 근초와(七大14)

5) 安秉禧·李瑛鎭(1990), 「中世國語文法論」, 學研社, p.76.

서 [곤치다]로 발음하고 있다.⁶⁾

그리고 17세기에 ‘곤츠다’는 ‘쓴츠다, 쓴츄다’와 같이 경음으로 음운변화하여 쓰였는데 用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전초와 쓴처(比較了)(朴諤 上35)
- 소리 쓴춘 후에야(聲絕)(痘經31)

이 ‘쓴츠다’는 18세기 국어에서도 계속 쓰였다. 이의 用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세번 쓴처지더라(十九:36)
- 오논 이룰 쓴츄려 후되(三譯8:18)

19세기 국어에서는 이 ‘쓴츠다’가 前舌母音化되어 ‘쓴치다’로 쓰였는데⁷⁾ 用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한가운데 속 쓴쳐지움거든(歌曲 p.137)

이 ‘쓴치다’가 20세기 초에 나온 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 보면 그대로 표제어로 실려 있는데 그의 의미는 ‘쓴허지다’와 같은 뜻으로 쓰여 自動詞로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쓴치다 : 「쓴허지다」에 同(총독부편, 『朝鮮語辭典』).
- 쓴허지다 : 切ろ (#).

이 ‘쓴치다’가 文世榮편 『朝鮮語辭典』에서는 표기가 ‘끊지다’로 되고, 뜻 역시 ‘끊어지다’와 같은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다음을 보자.

- 끊지다 : <自> 「끊어지다」와 같음.
- 끊어지다 : <自> ① 둘에 나다 ② 막히다 ③ 그쳐지다 ④ 없어지다 ⑤ 죽다

6) 金亨奎(1974), 「韓國方言 研究」, 서울대 출판부, p.387.

7) 국어사에서 前舌母音化는 19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보이면, 다시리논(治), 질겨온(樂), 추지니(壽), 안지되(坐)(이상, 顯明)

한편, '끊어지다'는 他動詞 '끊다'가 自動詞로 바뀌어 피동의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이 말은 17세기 국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語形은 '끊다'로 나타나는데 다음의 用例를 보면 알 수 있다.

• 끈을 절 : 絶(倭解 下36)

이 어휘가 18세기 국어에서는 폭넓게 사용되었는데 他動詞로 쓰였다. 이의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내 무옴의 상간을 물니쳐 끈헌 지 오래니(明義 卷首上27)
- 陳氏 머리를 끈허(陳氏斷首)(女四4:19)
- 생각을 끈코져 호노라(三譯1:16)

그리고 被動으로는 '끈히지다'가 쓰였다. 다음의 用例를 보자.

- 당 뒤 근쳐의 와 끈혀져 다시 들니지 아니커놀(明義 卷首上46)
- 生生하여 시리 끈히지디 아니하여(生生長不絶)(伍倫4:21)
- 다 끈히디니(五倫4:21)

지금까지 살펴 본 '긋다'와 '끈타'의 변천과정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 긋다(15세기) > 그츠다(15세기) > 근츠다(17세기) > 끈츠다(17세기) > 끈치다(19세기) > 끊지다(20세기)
- 끈타(17세기) > 끈타(他動詞)(18세기) > 끊다(20세기)
- > 끈히지다(自動詞)(18세기) > 끊어지다(20세기)

2. 나조

지금은 '夕'의 의미로 '저녁'이라는 어휘가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나조'라는 어휘가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이 어휘 '나조'는 '夕'의 의미와 함께 '曉'의 의미도 중세국어에 保有하고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당시의 用例를 보면 알 수 있다.

① 夕

- 아침매는 虛空에 나아 노다가 나조힌 브레 가 자누니(釋13:10)
- 부르매트 몐겨리 아침 나조히 업도다(風浪無晨暮)(杜初21:38)

② 晚

- 時節이 오매 벼스를 通達호몰 아노니 穸 나조히 브들 疎薄히 말라(時來知宦達歲晚莫情疎)(杜初21:12)
- 풀와 나모왓 歲月스 나조히 關河에 서리와 눈께 몐갓도다(草木歲月晚關河霜雪清)(杜初23:51)

이 어휘 ‘나조’는 18세기 국어까지 쓰였는데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아적의 잇다가 나조 주그니(朝存夕亡)(普勸22)
- 나조 석 : 夕(倭解 上5)

그런데 이 시기에 ‘저녁’이란 어휘가 쓰여 ‘나조’와 ‘저녁’은 同義構造를 이룬다. 18세기 국어에서 ‘저녁’의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아침과 전역을 아지 못호고(女四3:8)
- 저녁(晚上)(同文 上5)

이 ‘저녁’은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는데 19세기 국어에서도 ‘저녁’ 또는 ‘전역’으로 표기되었다. 이의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호로 전역은(一夕)(南宮13)
- 저녁(TJYE-NYEK) : 夕 Soir (韓佛字典)

여기서 語形 표기를 ‘저녁’ 또는 ‘전역’으로 하고 있어 단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國語史에서 단모음화는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⁸⁾ 이것이 20세기 초에는 단모음화된 ‘저녁’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8) 南廣祐(1977), 「朝鮮漢字音研究」, 一潮閣, p.123.

◦ 저녁 석 : 夕(兒學34)

그리고 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조'를 古語로 처리하고 있다.

◦ 나조 : 「저녁 夕」의 古語

이상 '나조'에 관한 변천과정을 살펴 보았는데 이 어휘는 18세기까지만 사용되고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신 18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한 어휘 '저녁'이 '夕'의 의미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 나조(15세기)(夕, 晩) > 나조(18세기)(夕)
저녁, 전역(18세기)(夕) > 저녁(20세기 초)

Ⅲ. 語形 分化型

1. ㅁㄹ

오늘날 '마룻대'를 나타내는 말로 옛날에는 'ㅁㄹ'라는 어휘가 쓰였는데, 후기중세국어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를 보유하고 있었다.

① 마룻대(棟)

- ㅁㄹ와 보허(棟梁)(杜初9:28)
- 雲臺에 ㅁㄹ 남글 허 가는도도다(雲臺引棟梁)(杜初24:10)
- ㅁㄹ 동 : 棟訓蒙 中6(類合 上23)

② 신체의 뼈대

- 등뭇뿔 니르와다(豎起脊梁)(法語13)(松廣寺本)
- 등ㅁㄹ 척 : 脊訓蒙 上27(類合 下51)

③ 基準, 要旨, 宗旨

- 萬像이 다 이룰 무르 삼누리라(萬像皆宗於此)(金三1:22)
- 날 몰몰 아디 몰호몰 니르시니(言不知出要)(法華1:232)
- 곳 무르 준 : 準(訓蒙 上26)
- 무르 의 : 義(類合 下1)
- 무르 지 : 旨(類合 下55)

다음 근대국어인 17세기 국어에서 '무르'가 쓰인 用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마룻대(棟)

- 님 무르와 보히 물어데소몰 니르누니(告訴棟梁摧)(杜重9:28)
- 무르(脊梁)(譯解 上17)

② 신체의 뼈대

- 다리시 무르(腿頂骨)(譯解 上36)
- 곳몰티 불근 덩곳 도드면(鼻梁發紅點)(痘要 下51)
- 등몰논 편호고(脊梁欲平)(馬諺 上4)

위의 예 ②와 같이 17세기에 '무르'가 신체어 '다리(腿)', '고(鼻)', '등(脊)' 등과 결합하여 쓰였다. 그리고 '무르'가 '基準'이나 '宗旨'의 뜻으로 쓰인 것은 未見이나, 이런 의미가 18세기 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7세기에도 이런 의미로도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대국어의 어휘 '마루'도 17세기 국어에서도 그대로 '마루'란 語形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語形 '무르'와는 源流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마루'의 예를 보면, 마루(地塘板)(譯解 上16)가 있고, 이러한 예는 18세기 국어에서도 이어진다. 예, 존현각 마루 우희(明義 卷首上4).

18세기 국어에서 어휘 '무르'의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마룻대(棟)

- 무르와(樑)(朴新3:16)
- 무르업시 편허 지은 집(平房子)(方言2:18)
- 무르 언파(上樑)(譯補13)

② 신체의 뼈대

- 콧마루(鼻梁)(蒙補5)
- 등마루뼈(脊梁骨)(蒙補6)
- 등마루 척 : 脊(倭解 上17)

③ 基準 宗旨

- 던하리 주롤 마루 삼거늘(天下宗周)(十九:50)

④ 등성이

- 농단은 언덕 돌니 올라(明義 卷首下64)

위의 예를 보면 語形 '마루'에 대한 의미가 ①~③은 15세기 국어와 다름없이 쓰인 것이고 ④의 '등성이'를 나타낸 의미는 18세기 국어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이 시기에 語形 '마루'가 '등성이'의 의미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날 국어사전에서 단어 '마루'에 '등성이'의 의미를 포함하여 풀이한 것⁹⁾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위의 用例에서 보듯 '등성이'는 語形 '마루'에 딸린 의미이므로 이러한 의미는 현대 국어사전에서 별도의 표제어를 마련함이 옳다고 하겠다.

어휘 '마루'가 18세기까지는 語形이 변하지 않고, 의미도 ① 마루대(棟), ② 신체의 뼈대, ③ 基準宗旨, ④ 등성이 등으로 나타나는데, 19세기에 와서는 변화가 보인다. 다음 用例를 보자.

- 마루대(宗木, 屋樑)(國漢 p.465)
- 마루락이(脊)(*)

위의 예를 보면, 18세기 국어에 . 음이 소실되면서 '마루'도 '마로'로 변했는데, 17세기 이래 쓰인 '마루'(板廳)와 비슷한 語形으로 쓰였다(마루 청 : 廳, 國漢 p.33). 그리고 '마로'가 '마루'(棟)로 모음교체(Ablaut)되어 '마루'(板廳)와 同音異義語가 되

9) 마루 : ① 집체 안이나 그 밖의 곳에 바닥과 사이를 두고 널판지를 깔아 놓은 곳.
 ② 길게 등성이가 이루어진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
 ③ 일의 함참인 고비. - 「새 우리말 큰사전」

여기서 두번째 ②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풀이는 총독부편과 文世榮편의 『朝鮮語辭典』에도 마찬가지이다.

었다. 그래서 同音衝突을 일으키게 되어 한 단어가 형태변화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는 '마루(板廳)의 語形은 그대로 불변하고 '마루(棟)가 語形變化를 일으켜 20세기 초에는 다음과 같이 '마르스대'를 거쳐 '마루스대'로 쓰였다.

- 마르스대 동 : 棟(字典釋要)
- 마루스대 : 棟木 (총독부편, 朝鮮語辭典)
- 마룻대 : 도리로 쓰는 긴 나무. (文世榮편, 朝鮮語辭典)

그리고, 15세기 국어 이래 어휘 '마루'가 보유하고 있던 의미 '신체의 뼈대'는 신체어와 결합하여 '등마루(脊梁), '콧마루'(鼻梁)란 語形을 갖는 단어로 현재도 쓰이고 있다. 또 山의 경우는 '산마루'란 단어로 쓰이어 語形이 분화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휘 '마루'에 대한 변천과정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 마루(15세기)(棟, 신체의 뼈대, 基準) > 마루(18세기)(棟, 신체의 뼈대, 基準, 등성이) > 마루(19세기)(棟, 신체의 뼈대, 등성이) > ① 마룻대(20세기)(棟木)
- ② 등마루(脊梁), 콧마루(鼻梁)
- ③ 산마루

2. 모

後期中世國語에 어휘 '모'는 다음과 같이 '角'과 '隅'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① 모서리(角)

- 네 모해 侍衛하 습더라(月釋2:43)
- 東西南北 네 모과(月釋1:29)
- 그 사방에 네 모허 조출식(釋19:13)
- 여덟 모(八角)(韻朴 上17)

② 모퉁이(隅)

- 모 것거돌오매(折遷)(小學3:18)
- 깊 모해서 우눗다(泣路隅)(杜初8:1)
- 모 우 : 隅(類合 上2)

17세기 국어에서도 어휘 '모'가 '角'과 '隅'의 의미를 보유하고 중세국어와 다름

없이 쓰였다.

① 모서리(角)

- 여덟 모 연(八角鶴兒)(朴蔭 上17)

② 모퉁이(隅)

- 더 西南 모해(那西南角上)(老諺 下1)
- 나물 爲하야 뵈 모홀 古르치는다(我指山隅)(杜重4:7)

그런데 17세기 국어에서는 위의 예 ②와 같은 '隅'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모퉁이'라는 語形이 쓰여 어휘 '모'와 類義關係를 이루게 된다. 이의 用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羊 저제 모퉁이를 향하야 가니라(往羊市角頭去了)(老諺 下1)
- ② 東녘 모퉁이에 즈름가닌디(東角頭牙家去)(朴蔭 上55)
- ③ 모퉁이에 가 여러 담 卞는 이와(去角頭叫幾箇打牆的和)(朴蔭 上10)

이들이 다음 用例에서 보듯,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에서는 '모퉁이'라는 어휘를 쓰지 않았고, 특히 예 ③의 경우는 '隅'의 뜻으로 '보십고지'란 어휘를 사용하였다.

- ① 羊저제 가니라(往羊市角頭去了)(諺老 下1)
- ② 동녘 저제 즈름아비 단닌디(東角頭牙家去)(諺朴 上62)
- ③ 보십고지에 가 여러 담 스리와 (去角頭叫幾箇打牆的和)(諺朴 上10)

이렇듯 17세기에 '隅'의 의미를 갖는 '모퉁이'라는 어휘가 生成되었는데, 18세기 국어에서도 어휘가 다음과 같이 활발히 쓰였다.

- 길 모퉁이(路隅)(蒙解 上31)
- 各處 드리 우와 담 모퉁이에 부치라(各處橋上牆角頭貼)(朴新3:53)
- 모퉁이(轉彎處)(譯補5)
- 모퉁이 우 : 隅(倭解 上11)
- 羊저제 모퉁이를 향하야 가시니(重老 下1)

그런데, 다음 用例와 같이 18세기에 어휘 '모퉁이'와 함께 '모퉁이'란 어휘가 등

장하여 쓰였다.

- 하늘⁷와 짜 모퉁이에(繪音 諭中外大小臣庶10)
- 집 모퉁이로 조차 엮보니(關義3:21)

이와 같이 18세기에 ‘모퉁이’란 語形을 가진 어휘가 쓰이기 시작하여 19세기 국어에서는 이 말이 크게 세력을 확장하고, ‘모퉁이’란 어휘를 몰아낸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문헌인 『國漢會語』에는 ‘모퉁이’란 어휘는 실려 있으나, ‘모퉁이’란 어휘는 실려 있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휘 ‘모’는 계속해서 많이 쓰이고 있다.

- 모퉁이(奧隅)(國漢 p.36, p.477)
- 모 방 : 方(國漢 p.35, p.476)
- 모 우 : 隅(國漢 p.477)

한편 20세기 초에 나온 총독부편 『朝鮮語辭典』을 보면 ‘모’와 관련된 어휘가 ‘모퉁이, 모서리, 모’ 등이 실려 있다.

□ 총독부편, 朝鮮語辭典

- 모 : 角(模稜, 모서리, 모퉁이, 모퉁이)
 모퉁이 : 「산 모퉁이」의 略.
 모서리 · 모퉁이 · 모퉁이 : 「모」(角)に同じ.

□ 文世榮편, 朝鮮語辭典

- 모 : ① 물건의 거죽으로 썩 나온 맨끝. ② 규각(圭角)과 같음. ③ 생광(生光)과 같음.
 모퉁이 : 「산모퉁이」의 준말.
 모퉁이 : ① 굽은 물건의 내민 곳. 구석의 길 쪽. ② 길이 꺾인 곳.
 모서리 : 날카롭게 생긴 모.

□ 신기철·신용철편, 새 국어 큰사전

- 모 : ① (수) 한 점에서 나온 두 반직선이 이루는 그림꼴 [도형]. ② 모서리, 능(稜). ③ 물건의 거죽으로 썩 나온 귀퉁이. ④ 사물의 어떤 측면이나 각도 ⑤ 구석이나 모퉁이. ⑥ 유난히 성깔이 있거나 가탈스러운 점. ⑦ 두부모나 목모 ⑧ ‘모로’의 형으로 부사로도 쓰임.
 모퉁이 : 산모퉁이의 휘어 들린 곳.

모퉁이 : ①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② [복판이나 중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둘레나 구석진 곳. ③ [좁은 범위의] 어느 부분. ④ [시간상의] 대목.
 모서리 : ① 물건의 모가 진 가장자리. ② (수) 다면각으로 된 물체의 모서리.

이와 같이 사전에서 '모퉁이'란 단어가 실려 있으나 '산모퉁이'의 약자로 쓰이고 현재는 '산모퉁이'란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어 '모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後期中世國語에 어휘 '모'가 담당했던 의미를 근대국어에서 '모퉁이'와 '모퉁이'라는 어휘가 생겨[語形分化] 의미분담을 하고, 현재는 어휘 '모'와 '모퉁이'가 제각기 의미확대를 하여 여러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모서리'라는 어휘도 많이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어휘 '모'에 대하여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모(15세기)(角,隅) > 모(17세기)(角,隅) > 모(20세기)
 - > 모서리(20세기)
- > 모퉁이(17세기)(隅) > 모퉁이(18세기)(隅).....현재는 소멸
 - > 모퉁이(18세기)(隅) > 모퉁이(20세기)(隅)

IV. 語形 變化型

1. 글발

'글발'은 15세기 국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글발로 말이수본돌(尼以巧詞)(龍歌26)

그런데, 이 어휘의 형성은 '글+발'의 복합어로 마치 '빗발, 깃발, 서릿발, 핏발, 눈발, 이빨(←잇 발)' 등에서 接辭 '-발'(←발<脚>)이 添着되어 이루어진 것과 같은 類¹⁰⁾인데, '글발'은 문헌상에 조선 초기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변화한 어휘 '글발'이 위의 예와 같이 龍飛御天歌에서 쓰였다. 이 말은 '글'(文)의 의미로 쓰

10) 南廣祐(1962), 「國語學論文集」, 중앙대출판국, p. 68.

였는데 이후 '글밭'은 語形이 '글밭'로 나타난다. 이의 用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글(文)

- 문은 글와리라(訓正)
- 譜는平生갓 처엄 乃終스 이불 다 쓴 글와리라(釋序4)
- 公案은 그릇 글와리니(蒙法6)

② 便紙

- 婆羅文이 글밭하야 須達이손터 보내야닐(釋6:15)
- 두 번 가는 글와리 업스니(無二道之文)(內2:10)

위의 예에서 보듯, 이 '글밭' 15세기 국어에서 '文'과 '便紙'의 뜻으로 쓰였고 이 때에 語形이 '글밭'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여러 의미로 쓰인 多義語였다.

① 글(文)

- 소리와 글밭와 놀요문(弄音文)(楞6:59)
- 글밭 문 : 文(訓蒙 上34)

② 文字

- 글밭 주 : 字(訓蒙 上36)

③ 冊, 書籍

- 春秋는 글밭 일후미라(法華2:178)
- 모로매 다섯 술윗 글워를 날굴디니라(須讀五車書)(杜初 7:31)
- 글워를 마츠매 서르 주리니(書籍終相與)(杜初8:25)
- 그월 적 : 籍(石千13)

④ 書札, 便紙

- 술위 타 오는 使者를 브티면 글워리 하늬고세 오리라(輟使書札到天垠)(杜初22:28)
- 글워를 時로 서르 더더 보내라(札翰時相投)(杜初22:39)
- 누출 마조 보와서 올 글워를 스랑하고(會面思來札)(杜初23:45)

⑤ 詩

- 글밭 시 : 詩(訓蒙 上34)

이와 같이 後期中世國語에서는 ‘글월’이 ‘글’, ‘文字’ 이외에 ‘詩’도 가리켰고, ‘冊’, ‘書札’도 나타냈다. 책과 편지 속에는 글이 들어 있으므로, 즉 空間的으로 隣接하여 있으므로 內容을 가리키는 말이 容器도 가리키는 식이 되었는데 이는 意味間 隣接認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어 17세기에도 ‘글월’의 쓰임이 여러 가지 의미로 활발히 쓰였는데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① 글(文)

- 未陽이 글위톨 들어(未陽馳尺素)(杜重1:57)

② 契約書, 文書

- 글월 쓰자(寫契)(老蔭 下13)
- 글월을 늘로 하여 쓰이료(文契着誰寫)(老蔭 下13)
- 짐짓 이 글월을 세워 쓰게 하였느니(故立此文契爲用)(朴蔭 上54)

③ 冊, 書籍

- 주역군 글월 일흠미라(正俗5)(규장각본)
- 글위레 날우티(傳曰)(正俗8)(규장각본)
- 뭇 글월 一萬卷을(群書一萬卷)(杜重19:28)

이어서 18세기 국어에서는 이 ‘글월’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자.

① 글(文)

- 송수 글월 학디 마라(松江 下3)

② 文書, 契約書

- 내 글월 벗기라 가노라(蒙老6:2)
- 네 그저 글월을 다가 잘 거두어(你只把文契收好了)(朴新2:20)
- 보니 이 장 푸는 글월이(看這張賣契)(朴新2:20)

위와 같이 18세기에도 어휘 ‘글월’이 ‘글’과 ‘文書, 契約書’의 의미로도 쓰였으나, 語形 ‘글월’ 대신 漢字語 ‘문서·文書’로도 많이 쓰였다. 특히 ‘書札’의 의미는 語形 ‘글월’을 쓰지 않고 그냥 漢字語 ‘편지·片紙’로 쓰고 있다. 다음의 用例를

보자.

- 네 집 문서 중에 혼 편지 이시니(明義2:22)
- 문서(文契)(方書3:22)
- 빚 문서(借契)(方書3:22)
- 文書를 누게 쓰이라(蒙老5:18)
- 태연이 충심이 있다 혼을 편지에 올리며(明義1:55)
- 상뇌 지휘에게 편지하야 곁오디(明義2:18)
- 편지 이서 브터 왓느니라(有書稍來)(朴新1:49)
- 아우 내 삼가 편지하노라(捷蒙4:15)
- 우리집 片紙 잇느나(蒙老5:5)

19세기 국어 문헌인 『國漢會語』에는 ‘글’(p.407)이라는 어휘는 실려 있는데 ‘글월’이라는 어휘는 실어 놓지 않았다. 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도 어휘 ‘글’은 ‘詩, 文’으로 풀이하여 놓았는데, ‘글월’은 ‘글’의古語라 하여 옛말로 처리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어휘 ‘글월’이 18세기에 쓰이기는 하였으나 빈도가 많이 쇠퇴하고 대신 ‘문서, 계약서, 편지’ 등 한자어나 전부터 써 내려오던 어휘 ‘글’이 계속 쓰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에서도 이 말은 거의 쓰이지 않으나 편짓글에서 “몇 자 글월 올립니다.” 등과 같이 약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現用 국어사전에 사전에 따라 ‘글월’을 옛말로 처리한 것(새 우리말 큰사전)과 現存하는 어휘로 실어 놓은 것(민중서림판 옛센스 국어사전)이 있다.

이 어휘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변천과정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 글밭(15세기) > 글왈(15세기) > 글월(15세기)(文, 文字, 冊, 便紙, 詩) > 글월(17세기)(文, 文書, 契約書, 冊) > 글월(20세기)(文)

2. 보차다

이 말은 15, 16세기에는 의미가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쓰였다.

① 侵犯하다

- 다쁜 나라히 와 보차거나 도즈기 곁외어나 ㅎ여도(月釋 9:44)
- ㅎ다가 鬼神이 그 境界를 보차리 잇거든(若有鬼神侵其境界)(圖 下 三之二92)

② 아프게 하다

- 부르미 뷔에 드러 五藏 보차 불리 움즈기디 몰고(風入腹攻五藏拘急不得轉側)(教方 上 56)
- 얼원 피 킷 안해 이서 무수물 보차 닻겨(瘀血在臟攻心煩悶)(教方 下18)

③ 괴롭히다

- 그 身心을 보차(惱其身心)(圓 下 三之二86)
- 이는 무물 보차미오 이는 모물 보차미니(是惱心也是惱身也)(圓 下 三之二86)
- 止는 오직 알깃 惡을 그쳐 누물 보차디 아니호미오(止則但止前惡不惱於他)(永嘉 上27)

위의 예를 보면 ‘보차다’가 중세국어에서는 漢字 ‘侵, 攻’ 또는 ‘惱’와 대응하고 있어 이 말이 육체적으로 침범하거나 아프게 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국어에서는,

① 침입하다(아프게 하다)

나그내로 든노매 病이 힘마다 보채낫다(於病年侵)(杜重3:13)

② 괴롭히다, 귀찮게 굴다

- 익리히 보채다(賴認)(譯解 下43)
- 사롬 보채다(奈何人)(譯解 下49)

등과 같이 쓰였는데 ‘보차다’가 ‘보채다’로 語形이 바뀌었고, 뜻도 이 시기에는 ‘侵 犯하다’란 의미는 보이지 않고 ‘(병이 침입하여) 아프게 하다’와 ‘괴롭히다’의 의미 만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어휘 ‘보채다’가 현대국어와 같은 의미로만 쓰이고 있어 의미가 더 단순화되었다.

<18세기 문헌>

- 너 이 아히들이 엇지 이리 나를 보채누노(你這孩子們怎麼這般遭害我)(朴新3:1)
- 곳 보채여 니르되(便賴說)(朴新3:20)
- 사롬을 보채며(奈何人)(五倫3:11)

<19세기 문헌>

- 우리 목숨을 도로 달나 **호**고 붓치기를 마지 아니**호**더니(當還我命)(太上2:15)
- 조금이나 어귀미 잇스면 **부**늘로 지르고 보치니(稍違卽以針刺)(太上5:63)

‘보채다’의 현대 의미는,

- 보채다 : <자> [어린 아이가] 귀찮게 칭얼칭얼하다. ㉠ 무엇을 요구하여 귀찮도록 조르다.

<타> [무엇을] 귀찮게 굴다 [요구하다].

— 새 우리말 큰사전

그럼 이 말의 변천과정을 圖式化한다.

- 보차다(15세기)(침범하다, 아프게 하다, 괴롭히다) > 보채다(17세기)(침입하다, 괴롭히다) > 보새다(18세기)(괴롭히다)

V. 語形 維持型

1. 날

어휘 ‘날’이 後期中世國語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① 太陽

- 날와 둘와(日月)(榜2:8)
- 길이 오히려 멀어는 나리 **호**마 **호**의 가 어엿브다(去路猶餘日已西可憐)(南明 上76)

② 밤낮의 동안

- 나물 虛費^호리토소니(費日)(杜初7:17)

③ 날짜

- 後^나날을 分別^호샤(月干46)
- 悉^달달이라 ^호샤리 나실 나래(釋6:17)

④ 날씨

◦ 날이 저기 추면(天少冷)(小學6:74)

위의 用例를 보면, 어휘 '날'이 현대국어와 다른 점은 '太陽'의 의미로도 쓰인 점이다. 그럼 어휘 '날'이 '太陽'의 뜻을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가 살펴보자.

<18세기 문헌>

- 날과 돌이 兩儀의 비침을 럽게 흐며(日月普兩儀之照)(女四4:2)
- 하늘에 두 날이 업고(闡義1:29)

<19세기 문헌>

- 나는 이에 날과 달 갖튼(吾乃日月)(關明12)
- 삼보는 별과 날과 달이나라(三寶星日月)(關明35)
- 날 나다(日出)(國漢 p.153)

위의 예를 볼 때, 어휘 '날'이 19세기까지는 '太陽'의 의미로 쓰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1920년에 간행된 총독부편 『朝鮮語辭典』에도 실려 있는 것을 볼 때, 20세기 초기에도 어휘 '날'이 '太陽'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을 보자.

- 날 : ① 「해」(太陽)に同じ.
- ② 一日の稱

그러나, 다음과 같이 文世榮편 『朝鮮語辭典』에는 어휘 '날'에 대하여 '太陽'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뜻풀이를 하여 놓았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어휘에서 '太陽'의 의미는 어느 사이에 소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 날 : ① 「일기」(日氣)와 같음. ② 「천기」(天氣)와 같음. ③ 낮. ④ 「날자」(日字)의 준말.
- ⑤ 「날수」(日數)의 준말. ⑥ 때. 적.

지금까지 살펴 본 '날'에 대한 의미 변천과정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 날(15세기)(太陽, 밤낮의 동안, 날짜, 날쌔) > 날(20세기)(太陽의 의미는 소실)

2. 놓다

현대국어 '놓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중세국어에서도 여러 의미를 보 유한 多義語였다. 이 말이 후기로 오면서 더 많은 의미를 얻어 의미가 확대된 단 어가 되었다. 이 어휘에 대한 의미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後期中世國語에서는,

① 어떤 자리에 두다.

- 고졸 노흐시며 白침을 노흐사(月千42)
- 드리 노흐사매(擧措)(法華7:35)

② 加하고 있던 힘을 풀다.

- 소놀 노티 말라(莫放手)(杜初8:32)

③ 석방하다, 풀어주다

- 所掠을 다 노흐사(盡放所掠)(龍歌41)
- 노하 보내야 상재 드외에 흐라(釋6:1)

④ 架設하다, 敷設하다

- 세 줄 드리몰 노흐니(釋11:12)
- 盤은 本來 사르미 노흔 거시니(盤本人敷設)(楞3:80)

⑤ 放心하다

- 오직 이 사름이 이의 노흔는 믿음을 가져다가(只是欲人將已放之心)(小學5:86)

등과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에 17세기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더 추 가된다.

① 가축을 어디에 있게 하다.

- 모던 더위에 드르히 노티 말고(酷熱不可野放)(馬諺 上94)

· 밤이어든 오향의 노코(野散於廐)(馬諺 下40)

② 放火하다

· 불 노타(放砲)(譯解 上20)

③ 그만 두다, 罷하다

· 學에서 선빅 노타(放學)(譯解 上15)

이 말의 표기를 보면 ‘ㅎ’이 받침으로써 쓰이지 않고, 당시의 표기법에 뒷말에 연결되어, 노타, 노타, 노하, 노ㅎ니, 노코 등과 같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18세기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이 어휘에 더 나타난다.

① 찌르다(찌매다)

· 상침(上針) 놋타(織)(漢濶339d)

② 發射하다

· 丘총 놋타(放鳥銃)(方言2:11)(同文 上49)

이 ‘놓다’가 19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設置’의 뜻으로도 쓰였다.

· 틀 놋타(設機)(國漢 p.320)

20세기 들어 서서도 ‘놓다’의 의미 증가는 계속되는데, 다음과 같이 총독부편 『朝鮮語辭典』을 보면 알 수 있다.

· 놋타 : ① 放つ. 放釋つ. ② 電報を打つ. ③ 發砲す. ④ 放火す.

· 놋타 : ① 置く. ② 刺繡す. ③ 算盤を置く.

위를 보면 어휘 ‘놓다’가 20세기 초에는 ‘전보를 치다’, ‘刺繡하다’, ‘주판으로 셈하다’ 등의 뜻이 더 추가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은 후대로 오면서 文物이 더 생겨나고 이에 따른 서술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존의 단어 가운데 聯關 있는 것을 골라 사용하는 이른바 ‘適用의 轉移’가 일어난다. 이런 연유로 ‘놓다’에 대한

의미의 확대가 일어 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전보를 치다’의 의미로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이 ‘놓다’가 더 많은 의미를 보유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새 우리말 큰사전』에는 앞에서 살펴 본 의미 이외에 다음과 같은 더 많은 의미들이 실려 있다.

- ① 심어 가꾸거나 기르다. ◦ 앞뜰에는 참외를 놓고, 뒷뜰에는 호박을 놓다.
- ② [장기나 바둑에서] 말이나 바둑돌을 발에 두다. ◦ 차·포를 떼고 놓다.
- ③ [팔·콩 따위 곡식이나 대추나 잣 따위 일정한 과실울] 음식에 섞어 놓다. ◦ 오탁밥에 콩을 놓지 않았다고요?
- ④ [이불·방석·옷 따위를 꾸밀 때에, 그 속에 솜이나 털 따위를] 놓다. ◦ 솜을 놓은 버선.
- ⑤ [일정한 임무를 주어] 보내다. ◦ 여러 명의 경찰을 놓아 범인을 잡다.
- ⑥ [집이나 물건의 세를 받거나 돈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 주다. ◦ 전세를 놓다.
- ⑦ [일정한 대상에게] 어떤 것을 해 대다. ◦ 방해를 놓다.
- ⑧ [빨리 가게 하기 위하여] 힘을 더하다. ◦ 속력을 놓다.
- ⑨ [‘놓고’로 쓰이어] ‘문제의 대상으로 삼아’의 뜻을 나타냄. ◦ 그를 놓고 말한다면 사연이 많소

VI. 結 論

이상과 같이 국어 어휘 변천을 ① 語形이 소멸된 것(긱다, 나즈). ② 語形이 分化된 것(머르, 모). ③ 語形이 변화된 것(글밭, 보차다). ④ 語形이 유지된 것(날, 놓다) 등으로 나누어 이들 어휘의 변천과정을 문헌을 근거로 하여 시기별로 고찰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을 살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긱다(語形 消滅型)

이 말은 15세기에 ‘中止’와 ‘斷’의 의미로 쓰였는데 후에 語形은 소멸되고, 지금은 ‘끊지다’, ‘끊다’, ‘끊어지다’라는 語形이 그런 의미를 맡고 있다.

- 긱다(15세기) > 그츠다(15세기) > 근츠다(17세기) > 끈츠다(17세기) > 끈치다(19세기) > 끊지다(20세기)
- 끈타(17세기) > 끈타(他動詞)(18세기) > 끊다(20세기)
> 끈허지다(自動詞)(18세기) > 끊어지다(20세기)

(2) 나즈(語形 消滅型)

이 말은 15세기에 ‘夕’과 ‘晩’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 語形은 18세기까지 나타난다. 그리고 18세기부터 語形 ‘저녁’이 대신 나타나 ‘夕’의 의미로 쓰였으나 ‘晩’의 의미로는 쓰이고 있지 않다.

- 나즈(15세기)(夕, 晩) > 나즈(18세기)(夕)(이후 19세기부터는 소멸)
저녁, 전역(18세기)(夕) > 저녁(20세기 초)

(3) 마루(語形 分化型)

이 말은 15세기에 ‘棟’, ‘신체의 뼈대’, ‘宗旨’의 뜻으로 쓰였던 것인데, 후에 語形이 分化하여 語形 ‘마룻대’가 ‘棟’의 의미로, 語形 ‘등마루’와 ‘콧마루’가 ‘脊梁’과 ‘鼻梁’의 의미로 쓰이고, 또 ‘산마루’란 語形도 쓰인다.

- 마루(15세기)(棟, 신체의 뼈대, 基準) > 마루(18세기)(棟, 신체의 뼈대, 基準, 등성이) > 마로(19세기)(棟, 신체의 뼈대, 등성이) > ① 마룻대(20세기)(棟木)
② 등마루(脊梁), 콧마루(鼻梁)
③ 산마루

(4) 모(語形 分化型)

이 말은 15세기에 ‘角’과 ‘隅’의 의미로 쓰였던 것인데, 후에 語形이 分化하여 지금은 ‘모’, ‘모서리’, ‘모퉁이’ 등의 語形이 쓰인다.

- 모(15세기)(角, 隅) > 모(17세기)(角, 隅) > 모(20세기)
> 모서리(20세기)
> 모퉁이(17세기)(隅) > 모퉁이(18세기)(隅) 현재는 소멸
> 모퉁이(18세기)(隅) > 모퉁이(20세기)(隅)

(5) 글밭(語形 變化型)

‘글+밭’의 복합어로 15세기에는 語形이 ‘글밭’로 나타나고, ‘글밭’을 거쳐 ‘글월’로 음운변화하였다.

- 글밭(15세기) > 글밭(15세기) > 글월(15세기)(文, 文字, 冊, 便紙, 詩) > 글월(17세기)(文,

文書, 契約書, 冊) > 글월(20세기)(文)

(6) 보차다(語形 變化型)

이 말은 15세기에 語形이 '보차다'로 쓰였지만, 17세기에는 '보채다'로 음운변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보차다(15세기)(침범하다, 아프게 하다, 괴롭하다) > 보채다(17세기)(침입하다, 괴롭하다) > 보채다(18세기)(괴롭하다)

(7) 날(語形 維持型)

이 말은 語形이 15세기나 지금이나 같지만 의미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이 말이 15세기 이래 19세기까지는 '太陽'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다.

◦ 날(15세기)(太陽, 밤낮의 동안, 날짜, 날씨) > 날(20세기)(太陽의 의미는 소실)

(8) 놓다(語形 維持型)

이 말도 語形이 15세기나 지금이나 같지만, 다만 표기는 당시의 표기법에 따라 '노타, 노하샤, 노하니...' 등으로 했다. 이 어휘가 15세기에도 여러 의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후대로 올수록 더욱 많은 의미를 보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參考文獻

- 金泰現(1994), “國語語彙의 變遷 研究(1)”, 白鹿語文10, 제주대 국어교육연구회.
_____(1995), “國語語彙의 變遷 研究(2)”, 語文研究86, 韓國語文教育研究會.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大 出版部
南廣祐(1962), 『國語學論文集』, 中央大 出版局.
_____(1977), 『朝鮮漢字音』, 一潮閣.
安秉禧·李珖鎭(1990), 『中世國語文法論』, 學研社.
劉昌惇(1974), 『語彙史研究』, 宣明文化社.
全在昊(1987), 『國語語彙史研究』, 慶北大 出版部
S. Ullmann著·南星祐譯(1981), 『意味論의 原理』, 탐출판사.

韓佛字典(1880)

朝鮮語辭典(1920), 朝鮮總督部전.

朝鮮語辭典(1938), 文世榮전.

새 우리말 큰사전(1988), 신기철·신용철, 삼성이데아.